



36년 만에 4강행, 이지솔 '극장골' 8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한국과 세네갈전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지솔이 동점 헤더골을 넣고 있다. 이날 한국은 세네갈과 연장 혈투 끝에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겼다.

벤투호, 최근 A매치 4연승 도전

한국, 호주에 1-0 승리... 6월 A매치 2연승 노력 오는 11일 '아시아의 강호' 이란과 평가전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강호' 이란을 상대로 A매치(축구대표팀간 경기) 4연승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친선경기를 벌인다. 7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의 유망' 호주와 대결에서 황의조(김바 오사카)의 결승골로 기분 좋은 1-0 승리를 챙긴 벤투호는 6월 A매치 2연승과 최근 A매치 4연승에 도전한다. 벤투호는 3월 A매치 상대였던 볼리비아(1-0 승), 콜롬비아(2-1 승)를 연파했고, 호주에 이어 이란까지 잡으면 9월부터 시작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다. 한국오디션 이란에 진 빛을 갚을 차례다. 작년 8월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벤투 감독은 한국의 '전적'으로 떠오른 이란과 맞붙은 적이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7위

인 한국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국가 중 랭킹이 가장 높은 21위인 이란과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 9승 8무 13패로 뒤진다. 또한 5경기 연속 무승(1무 4패) 부진에 빠져 있다. 2011년 1월 22일 AFC 아시안컵 8강에서 윌벳가람의 골로 1-0으로 꺾은 이후 8년넘게 이란을 이겨보지 못했다. 벤투 감독은 이란과 대결에서도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손흥민은 호주전에서 황희찬(잘츠부르크)과 투톱을 이뤄 선발 출장했고, 후반 들어 황희찬 대신 기용된 황의조와 공격 쌍두마차로 활약하며 1-0 승리에 힘을 보탤다. 손흥민이 이란전에서도 투톱으로 나선 경우 호주전 결승골 주인공인 황의조와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호주전에 풀타임으로 뛰었던 손흥민은 체력적인 부담에도 "힘든 부분

은 없었다"면서 이란전 출전 의지를 보였다. 벤투 감독이 호주전 때 가동한 플랜B 전술인 스리백을 이란전에서도 그대로 쓸지가 관심거리다. 권경원(렌진)-김민재(베이징 귀안)-김영권(김바 오사카)이 늘어선 수비라인은 후반 빌드업에서 문제를 보였다. 벤투 감독은 "공격 전개에서는 아쉬웠지만, 수비적으로는 좋았다"면서 스리백 실험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벵기에 출신의 마크 빌보츠 감독 체제로 재편한 이란은 상층계를 타고 한국 원정 승리를 노린다. 지난달 16일 카를로스 케야로스(현 콜롬비아 대표팀 감독)의 후임으로 이란 사령탑에 오른 빌보츠 감독은 데뷔전이었던 7일 시리아와 평가전에서 5-0 대승을 거둬 기분 좋은 신고식을 했다. 특히 빌보츠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벵기에를 8강으로 이끌면서 흥행보 전 감독이 지휘한 한국에 조별리그 0-1 패배를 안겼다. 벤투 감독이 대신 실록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주휠체어농구단 우정사업본부장배 결승행

에선 풀리그 4전 전승 장식 오늘 숙적 서울시청과 격돌

제주특별자치도휠체어농구단(단장 부형종, 이하 제주)이 제18회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선 풀리그를 전승을 장식하며 결승에 직행했다. 제주는 9일 서울시고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구시청과의 경기에서 64-38로 크게 앞서며 결승에 진출, 10일 숙적 서울시청을 만나 우승컵을 놓고 혈전을 벌인다. 최근 제주도시사회 결승에서 서울을

제압하며 우승했던 제주로서는 앞서 지난 7일 이 대회 두번째 경기에서 서울을 맞아 다시 한차례 이겼던 터라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특히 지난해 3위에 머물렀던 제주로서는 이번 대회 우승을 발판삼아 앞으로 있을 전국장애인체전과 2019 KWBL 휠체어농구리그 등 굵직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다는 기대다. 다만, 제주는 서울의 반격에 대한 대응 마련과 주요 공격수인 김동현 등의 반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청은 지난해 선수 영입과 새로운 전술로 제주를 위협하

는 팀으로 결승인 만큼 강한 투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지난 6일 고양홀트와의 첫 경기를 67-44로 이기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시청을 제압했고, 같은날 열린 수원무궁화외의 경기를 77-68로 장식했다. 당시 3쿼터에서 제주의 황우석(4번전)과 송창현(3번전)이 반격 때문에 적군측의 수비 부담을 못하면서 1분 40여초를 넘겨주고 53-52로 1점 차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제주의 해결사 김동현이 3점슛 2개를 연속으로 성공, 61-52로 달아나며 승리를 일켰다. 백영탁기자

제주, mfs배 제주국제 아마추어골프 '썩쓸이' 개인전·단체전·메달리스트·장타상·근접상 독식

제주도선수단이 'mfs배 제10회 제주국제 한·중·일 아마추어골프'에서 개인전·단체전·메달리스트·장타상·근접상을 썩쓸었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레포츠 제주연맹골프협회(회장 양성식)의 주최로 지난 3-4일 오라CC 및 사이프리CC에서 열렸다.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해 서울, 경기, 경남, 대전,

광주 등에서 선수 및 가족 28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J-TOP이 남자 단체전에서 최종합계 219타를 기록, 일본을 1타 차로 앞서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위는 중국(230타)이 차지했다. 여자단체전에서는 제주팀이 1-3위를 독식했다. 1위 버디버디가 23타, 2위 아싸라비가 24타, 3위 스크라

치가 247타를 각각 기록했다. 남녀 개인전 우승은 물론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도 제주가 모두 휩쓸었다. 남녀 개인전 우승은 김민천(69.4타)과 문순연(71타) 선수가 챙겼다. 남녀 메달리스트는 문성환(70타)과 이현정(69타) 선수에게 돌아갔다. 남녀 장타상은 이상호(305m)와 양명순(250m) 선수의 폼에 안겼다. 근접상은 강창식(0.9m)과 윤석영(2.3m)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류현진, 시즌 10승 도전 11일 오타니와 첫 대결 전망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꼽히는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일본이 자랑하는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5·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첫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류현진은 11일 오전 11시 7분(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에인절스와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인타리코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미국 ESPN은 11일 에인절스전 다저스 선발 투수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다저스 로테이션상 류현진의 차례이기도 하다. 류현진과 오타니는 아직 단 한 번도 상대하지 않았다. 올해 류현진은 9승 1패 평균자책점 1.35의 놀라운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단독 1위고, 다승은 공동 1위다. 에인절스전에서도 승리를 챙기면 10승 고지를 밟는다. 연합뉴스



제주삼다수가 여자일반부 개인전 3관왕을 차지한 양세미(맨 오른쪽)의 맹활약에 힘입어 단체전 3위에 입상했다.

제주 양세미, 실업체조연맹회장배 '3관왕' 도마·평균대·개인종합 1위... 삼다수는 단체전 3위

제주체조의 유망주 양세미(19·제주 삼다수)가 제20회 한국실업체조연맹회장배 대회에서 개인전 3관왕을 달성했다. 양세미는 지난 6-7일 대전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여자일반부 개인전 도마에서 12.950점으로 우승했다. 또 평균대에서 12.7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이단평행보와 마루에서 승우권을 밖으로 밀려났지

만 도마와 평균대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며 4개 종목 총점 48.200점으로 개인종합 1위를 거머쥐었다. 제주삼다수의 양세미의 맹활약으로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4개 종목 총점 175.250점으로 3위에 입상했다. 양세미는 오는 18-19일 한라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제3회 제3회 코리아컵 제주국제체조대회에 출전,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과 경쟁한다. 백영탁기자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and 3 rows of program schedules.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MBC 뉴스투데이, JIBS 뉴스, and EBS1 시사강연.

Table with 2 columns (오늘의 운세, 10일) and 10 rows of daily horoscopes for different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